

# 한국민주당 창당과 테마고기

— 송진우의 동향에서 발원한 경로를 중심으로 —

김인식\*

- I. 머리말
- II. 식민지시기 끝무렵 송진우의 시국 전망과 대처 방안: 일제필망론과 대책무책론
- III. 8·15당일 송진우의 사랑방 公論: 현상유지책과 연합국 직접상대론
- IV. 한국민주당 발기와 테마고기: 친일몰이와 중경임시정부 과대평가
- V. 맺음말

## <국문초록>

정당이 난립하는 해방정국에서 1945년 말경에 이르면, 정견을 발표할 역량을 지닌 정당은 朝鮮共產黨·朝鮮人民黨·國民黨·韓國民主黨(한민당) 4개 정당으로 압축되면서 통칭 ‘4대 정당’으로 불리었다. 신국가건설운동의 視空間이었던 해방정국에서, 이들 유력 정당이 민중들의 정치 열망을 수렴하여 어떻게 정치 활동으로 표출하는가는 곧바로 국가건설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일이었다.

해방정국이 ‘4대 정당’의 지도자들이 주도한 정당의 이념과 노선은 과거 식민지시기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표현되었다. ‘4대 정당’은 식민지시기 항일 운동의 경력이 존재하였고, 대표되는 인물로 구심력을 형성하였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었다.

한민당은 朝鮮人民共和國(人共)처럼 ‘벽보 내각(조각)’을 졸속하게 구성하지

---

\*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는 않았지만, 미군 진주를 앞두고 人共에 대하여 급속하게 발기한 정당이었다는 점에서, 양자는 일치하는 특징을 지녔다. 이 점에서 한민당은 정강·정책의 동질성에 근거한 이념정당이 아니라, ‘反조선건국준비위원회’·‘反인민공화국’이라는 대립의식과 적대성을 공유하는 정치세력들의 연합체로 출발하였다.

정당이 타 정치집단·정당과 정치 이념·노선을 둘러싸고 政戰함은 상례이지만, 특정 정치세력을 향한 적대성을 結黨의 명분으로 삼은 예는 ‘4대 정당’ 중 한민당이 유일하였다. 한민당의 창당에는 정적을 배격하는 데마고기를 유포하면서 이 명분을 합리화하였다는 데에서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

데마고기의 방향은 건국준비위원회와 人共을 친일·공산주의·親蘇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重慶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과대평가하여 絶對支持하는 이른바 ‘중경임시정부 절대지지론’의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데마고기는 한민당 구성원의 해방 전후의 동향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송진우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논문은 8·15해방 직후 한민당 결당의 명분이 된 데마고기가, 8·15해방 전 송진우의 정국 구상에서 발원하였음에 주목하면서 송진우와 한민당 인사들의 정국 구상을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어 : 데마고기, 송진우, 여운형,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중경임시정부 절대지지론, 8·15해방, 한국민주당

## I. 머리말

해방정국에서는 “눈 뜨고 나면 정당이 생긴다”는 말과 같이, 수백 개의 정당·사회단체가 어지럽게 들어섰다. 좋은 쪽으로 눈살피면 식민지 시기 정치에 목말랐던 한국민의 다수가 국가건설에 열성을 보인 정치의 첫 계절이었으나, 정당원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두 배를 넘는 기이한 현상에서 보듯이, 해방정국은 정쟁이 난무하는 분열로 헤매었다.<sup>1)</sup>

그렇더라도 세간의 시각과 평가는 난립하는 정당들의 대표성을 정돈하고 있었다. 1945년 말경에 이르면, 방송국을 통하여 정견을 발표할 역량을 지닌 정당은 朝鮮共產黨·朝鮮人民黨·國民黨·韓國民主黨(앞으로 한민당으로 줄임) 4개 정당으로 압축되면서 ‘4대 정당’으로 불리었다. 어떠한 기준에 의거했는지 우연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각 당 대표의 방송 순서는 이념정향으로 볼 때 가장 왼쪽에서 시작하여 가장 오른쪽으로 끝났다.<sup>2)</sup>

신국가건설운동의 視空間이었던 해방정국에서, 이들 유력 정당이 민중들의 정치 열망을 수렴하여 어떻게 정치활동으로 표출하는가는 곧바로 국가건설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일이었다. ‘4대 정당’은 식민지시기 항일운동의 경력이 존재하였고, 대표되는 인물로 구심력을 형성하였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 중 呂運亨·安在鴻의 해방 전후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충분히 알려져 있다. 해방을 앞두고 항일운동을 적극 전개하지 못한 조선공산당을 자아비판하면서 「8월 테제」를 작성한 朴憲永의 행적도, 「8월 테제」 자체를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났다. 반면 宋鎮禹를 비롯해 한민당 구성원의 정국 구상<sup>3)</sup>은 충분히 다루어

1) 김인식, 『안재홍의 신국가건설운동 1944~1948』, 선인, 2005, 147쪽.

2) 이 방송 연설은 조선공산당(11월 30일 병중인 朴憲永을 대신해 鄭泰植이 代讀) → 조선인민당(12월 7일 呂運亨) → 국민당(12월 14일 安在鴻) → 한국민주당(12월 21일 宋鎮禹) 등 4대 정당<sup>이</sup>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中央放送局에서 순차로 실시하였다.

3) 지금까지 한민당과 관련한 연구는 정치학계와 한국근현대사학계를 중심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다각도에서 진행되었지만, 한민당 구성원의 해방 전후 정국 구상을 주제로 다룬 바는 많지 않다. 金仁植, 「송진우·한국민주당의 ‘중경임시정부 절대지지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4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이 ‘중경임시정부 절대지지론’에 초점을 두어 해방 전후 한민당의 정국 구상에 접근하였으나 여백이 많이 남았다. 이후 이현주, 「8·15 전후 朝鮮總督府의 정책과 朝鮮政治勢力의 대응」, 『國史館論叢』第108輯, 國史編纂委員會, 2006이 8·15해방 전 송진우의 동태와 연관시켜 8·15해방 후 國民大會準備會를 검토하였다. 이어 윤덕영, 「송진우·한국민주당의 과도정부 구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론」, 『韓國史學報』第42號, 高麗史學會, 2011에서도 송

지지 않았다.

신국가건설기인 해방정국기에 ‘4대 정당’의 지도자들이 주도한 정당의 이념과 노선은 과거 식민지시기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표현되었다. 이들이 해방전후의 時空에서 어떻게 해방을 준비하였고, 미소군이 국내에 진주하기 전까지 권력의 공백기에 어떻게 대처하려 구상하였는지가 중요한 이유이다.

한민당은 朝鮮人民共和國(앞으로 人共으로 줄임. 朝鮮建國準備委員會도 建準으로 줄임)처럼 ‘벽보 내각(조각)’을 졸속하게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미군 진주를 앞두고 人共에 대항하여 급속하게 발기한 정당이었다는 점에서 양자는 일치하는 특징을 지녔다. 人共이 미군 진주에 대응하기 위하여 졸속하게 조직되었다면, 한민당도 미군 진주를 앞두고 서둘러 結黨을 추진하였다. 이 점에서 한민당은 정강·정책의 동질성에 근거한 이념정당이 아니라, ‘反건준’·‘反인공’이라는 대립의식과 적대성을 공유하는 정치세력들의 연합체로 출발하였다.

정당이 타 정치집단·정당과 정치 이념·노선을 둘러싸고 政戰함은 상례이지만, 특정 정치세력을 향한 적대성을 결당의 명분으로 삼은 예는 ‘4대 정당’ 중 한민당이 유일하였다. 한민당의 창당에는 정적을 배격하는 데마고기를 유포하면서 이 명분을 합리화하였다는 데에서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다.

데마고기는 建準과 人共을 친일·공산주의·親蘇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重慶의 대한민국임시정부(앞으로 중경임정으로 줄임)를 과대포장하여 絶對支持하는 이른바 ‘중경임시정부 절대지지론’(앞으로 ‘절대지지론’으로 줄임)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데마고기는 한민당 구성원의 해방 전후의 동향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

진우의 과도정부 구상의 핵심인 국민대회준비회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송진우가 위치하였다. 식민지시기 끝무렵 각지에 疏開·散在하였던 한민당 구성원들이, 8·15해방 후 송진우의 사랑방에 모여든 데에서 보듯이, 송진우는 한민당의 중추 인물이었다.

이 논문은 8·15해방 직후 한민당 결당의 명분이 된 데마고기가, 8·15해방 전 송진우의 정국 구상에서 발원하였음에 주목하면서 송진우와 한민당 인사들의 정국 구상을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필자가 선행 논문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던 한민당의 데마고기를 중심 주제로 삼아, 부족하였던 논지를 보강하려는 의도도 함께 지녔다. 제2장에서는 일제가 패망을 앞둔 식민지시기 끝무렵 송진우가 시국을 전망하면서 대처 방안으로 내놓은 日帝必亡論과 對策無策論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8·15당일 송진우가 자신의 사랑방에 집결한 한민당 구성원들에게 제시한 시국 구상으로 현상유지책과 연합국 직접상대론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민당의 발기인 「성명서」에 나타난 두 가지 데마고기로 建準=친일정권이라는 친일몰이와 중경임정을 과대평가하여 ‘절대지지론’의 근거로 삼는 논리를 확인하였다.

## II. 식민지시기 끝무렵 송진우의 시국 전망과 대처 방안: 일제필망론과 대책무책론

일제가 패전을 향해 달려가던 식민지시기 끝무렵, 송진우가 향후 시국을 어떻게 전망하면서 대처 방안을 구상하였는지, 먼저 그의 정국 구상을 추적함으로써 한민당이 창당 전후 유포한 데마고기의 성격을 확인하려 한다.

1943년 들어 송진우는 일제가 패망하리라 확신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日帝必亡論’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해 어느 날, 그는 최측근인 郎山 金俊淵과 일제필망 뒤의 질서회복과 사태수습 문제를 의논하면서 일제필망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자료 1)

일제는 꼭 망하오. 그런데 저희들이 궁박하게 되면, 자치(自治)라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할 거요. 형세가 악화해서 더욱 궁하게 되면 독립을 허여(許與)한다고 할거요. 우리는 「자치」를 준다고 해서 움직여서는 안되오. 독립을 준다고 해도 응해서는 안되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니가.

송진우는 이렇게 예언에 충고까지 덧붙여 자신의 시국 전망을 확신하면서도, “낭산, 대책(對策)은 무책(無策)이요”라는 결론을 내렸다.<sup>4)</sup>

김준연은 해방 1주년을 맞이하여 정계 1년을 회고하는 가운데, 송진우에게 일제필망론과 대책무책론을 “數百番 들었다”고 전제하면서, (자료 1)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뒤 송진우의 말을 다음과 같이 직접 화법으로 인용하였다.

(자료 2)

亡해가는 놈의 손에서 政權을바다서 무슨所用이있겠느냐 佛蘭西의페탕 政權을보라 中國의汪兆銘政權 또比律賓의 라우렐政權을보라 그들이 畢竟 허수아비政權박게되지못할것이고 民族反逆者의일홈을듯게된다.

---

4)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 編, 『古下宋鎮禹先生傳』, 東亞日報社出版局, 1965, 286-287쪽;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 編, 『古下宋鎮禹傳記』, 東亞日報社, 1990, 415-416쪽. 앞으로 『古下宋鎮禹先生傳』을 『先生傳』, 『古下宋鎮禹傳記』를 『傳記』로 줄임. 『先生傳』과 『傳記』를 묶어서 함께 지칭하고자 할 때에는 ‘송진우의 전기’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傳記』는 『先生傳』을 저본으로 가필·증보하였으므로 『先生傳』에 없는 내용도 많다. 문장과 내용을 포함하여, 두 곳의 서술이 일치하는 곳에서는 『先生傳』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다.

김준연은 송진우가 “이와같은생각으로 總督府의交渉도 拒絶하고 呂運亨氏의提議도拒絶한것이였다 이것은 宋鎮禹氏가總督府側提案을拒絶한理由가되는同時에呂運亨氏側提案을拒絶한理由도되는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sup>5)</sup> 김준연이 ‘일제필망론’을 따로 떼어 송진우를 추모할<sup>6)</sup> 만큼, 송진우의 일제필망론은 8·15해방 이후 송진우의 정치활동뿐 아니라 한민당의 창당 명분과도 절대 상관성을 지녔다.

김준연이 반복·강조해서 전하는 송진우의 일제필망론에는, 8·15해방 후 한민당 발기인 성명을 비롯하여, 한민당 창당에 관여한 일부 인사들의 회고록 등에도 일관되게 등장하는 親日데마고기가 깔려 있었다. 이들이 제기한 여운형·안재홍의 친일 행위는 해방정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데마고기-해방정국에서 한민당도 ‘데마’로 약칭하였던-였다.

일제필망 이후 권력 공백기의 혼란상은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必然事였으므로, 책임 있는 민족지도자라면 이를 수습할 방도를 구상함이 宜當事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일정한 대체권력-이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이 요청될 터이므로, 이 지점을 상징함은 意識人에게는 논리의 수순이었다. 그런데도 김준연의 회고와 송진우의 전기가 전하는 ‘일제필망론’에는, 일제필망 이후 신국가건설의 전제이자 출발점인 권력체 구상이 누락되어 있다. 국제정세에 밝은<sup>7)</sup> 송진우는 정말 권력 공백기의 대

- 
- 5) 김준연에 따르면, “宋鎮禹氏는 中日戰爭(日支事變)이 일어나고 美日戰爭(大東亞戰爭)이 繼續하여 일어나서 日本이赫赫한勝利를 얻어가는 동안에도 日本必亡의 信念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 金俊淵, 「解放과 政治運動의 出發」(二), 『東亞日報』 1946. 8. 16. 이 말에 의거하면, 일제필망론은 송진우에게는 신념이었다. 후술하듯이 조병옥이 자신과 송진우를 ‘日帝必亡信者’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 수 있다.
- 6) 金俊淵, 「古下·宋鎮禹-日帝必亡論과 東亞日報때의 이야기」, 『新太陽』 通卷 第六三號·第六卷·第十二號, 新太陽社 (1957년 12월), 174-180쪽.
- 7) 송진우를 贊評하는 첫 번째 경륜은 국제정세에 밝은 해안이다. 송진우의 ‘後學’인 高在旭은 『先生傳』의 「序」에서 “世界 大勢에 대한 正確한 分析, 歷史의 進運에 대한 銳利한 先見은 斷然 他的 追從을 不許하였다.”고 贊하였다. 高在旭, 「序」(1965. 9.

체권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국을 ‘관망’<sup>8)</sup>만 하였을까. ‘관망’이라는 표현은, 송진우의 전기를 비롯하여 측근들의 회고담이 송진우를 찬평하는 ‘예리한 판단력’과 너무 상충한다.<sup>9)</sup>

(자료 1)에서 송진우가 김준연과 나눈 대화를 보면, 송진우는 일제가 필망하기 직전에 한국인에게 ‘자치’와 ‘독립’이라는 ‘미끼’를 순차로 던지리라고 확언하면서, 汪兆銘·라우렐(José Paciano Laurel)과 페탱(Pétain, Henri Philippe)의 예를 들며 경계하라고 충고하였다. 汪兆銘 등 3인이 附逆하여 반역자가 된 시점은 일제와 나치가 한창 乘勢할 때-김준연도 “日本이赫赫한勝利를얻어가는동안”이라고 표현하였듯이-였고, 이들은 전범국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직함을 받았으므로 명백하게 부역자이자 반역자였다. 일제와 나치독일이 언젠가는 ‘망할 놈’일지언정 아직 망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汪兆銘 등 3인이 세운 정권이 ‘허수아비정권’임도 분명하였다.

- 5), 『先生傳』, 3-4쪽. 송진우를 천착해 연구한 윤덕영도 ‘송진우’라는 주어 앞에 “국제 정세에 밝은”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하였다. 윤덕영, 「일제하·해방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노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274쪽.
- 8) ‘관망’이라는 단어는 식민지시기 끝무렵부터 해방 후 미군이 진주하기까지 송진우의 시국 대처 방식과 관련하여 주되게 사용되는 단어이다. 윤덕영은 8·15해방 전후 송진우가 ‘관망적 태도’를 취한 첫째 이유로, “종전 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임을 들었다. 그리고 “국내의 정세변화에 대단히 민감”한 그가 정세판단이 불투명할 때는 “대체로 관망적 태도를 취”하였듯이 당시도 그러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윤덕영, 「고하 송진우의 생애와 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현대사인물연구』 2, 백산서당, 1999, 41쪽. 또 윤덕영은 식민지시기 끝무렵 송진우가 “정세를 관망”한 이유를 보신책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짚었다. “파시즘의 폭력성과 玉碎를 각오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생리, 일본 정계의 동향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것기에 신념을 보호하면서 해방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길로 여겨졌다.” 윤덕영, 앞의 논문, 2010, 275쪽. 그러나 8·15해방 당시 어느 누구도 연합국의 대한정책에 ‘구체적 정보’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또 식자층이라면 누구나 국내외 정세변화에 민감하였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들에게 제시할 길을 모색해야 할로 민족지도자의 몫이었다.
- 9) 金仁植, 앞의 논문, 132쪽.

그러나 송진우는 승세하는 전범국을 ‘망해가는 놈’과 동일시하면서 직면한 상황을 왜곡하였다. 곧 항복할 일제와 교섭하여 향후의 혼란기를 수습하려는 민족지도자들을 汪兆銘 등에 빗대는 논리는, 자신이 시국을 주도하지 못하는 책임을 합리화·면책하려는 방어론이었다. 나아가 한민족이 주도하여 일제에게 정권을 접수함으로써 시국을 수습하는 동시에 신국가건설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국내의 민족지도자를 부역자로 매도하려는 算術도 개재하였다. 여운형·안재홍은 일제 측과 교섭하였지만, 일제가 임명하는 직함을 받지 않는 않았다. 바로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일제와 밀접한 관계였음을 架空할 필요성이 생긴다. 한민당의 발기인 「성명서」와 기타 문건들을 비롯해서, 소속 인사들의 회고담이 여운형·안재홍을 향한 친일몰이를 반복한 이유였다.

『先生傳』은 이러한 송진우의 의중을 곧바로 입증하는데, 친일몰이의 논리가 송진우에게서 발원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1944년 7월 사이판섬에서 일본군이 전멸한 소식이 전해지던 무렵, 경기도 평택에 疏開해 있던 안재홍이 송진우를 찾았다. 안재홍이 “기왕 조선사람들이 군인으로 나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바에야 그 피값을 받아야 할 것 아니요? 그러니 무슨 운동을 일으켜 다소의 권리라도 얻어야 하지 않겠소?”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송진우는 “긴박한 시국에는 오직 침묵밖에…… (원저의 줄임표임 : 인용자)<sup>10)</sup> 만일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일본의 손아귀 속에 끌려 들어갈 뿐이요.”라며 거절하였다. 안재홍이 “고하는 참 로맨틱도 하시요. 침묵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이승만박사가 미국 군함이라도 타고 인천 항구로 들어올 듯 싶소?”라고 반박하자, 송진우는 “피는 탄 사람이 흘리고, 그 값은 당신이 받는단 말이요?”하고 노기를 띠면서 끝내 거절하였다. 그는 안재홍과 논쟁을 벌인 날부터, 약병을 머리

10) 앞으로 ……는 원저의 줄임표를, …는 필자가 中略하였음을 표시한다.

맡에 놓고 이불을 펴고 드러누워서 중병을 가장한 채 두문불출하였다.<sup>11)</sup>

안재홍에 따르면, 1944년 가을 그는 “民族主義者의 一重鎮인 某氏와 時局對策을 논”하였는데,<sup>12)</sup> 여기서 익명의 ‘모씨’는 송진우였다.<sup>13)</sup> 이때 안재홍이 송진우에게 제안한 내용의 요점<sup>14)</sup>은,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대비하여 민족주의 진영을 ‘主流力量’으로 삼는 조직을 결성하자는 데 있었다. 안재홍은 일제가 붕괴함은 시간문제로 다가왔고, 이때 조선인과 일본 군대 사이에서 쓸 데 없는 ‘流血慘劇’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 또 일제가 패망한 뒤 각각 국제세력을 배경으로 삼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 대립·항쟁이 올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비하여 국내에 있는 ‘양심적인 부대의 주류역량’을 결성하여 시국을 구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先生傳』, 288-289쪽; 『傳記』, 417-418쪽. 김준연도 1944년 7월의 일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을 몇 차례 기술하였는데, 송진우의 전기가 김준연에 의거하였음을 보여준다. 김준연은 일제가 명사들을 동원하여 學兵권유강연을 시키던 ‘해방 一년전의 일’을 배경으로 송진우와 안재홍-안재홍을 ‘어떤 친구’로 지칭하면서-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어떤 친구가 古下를 그 苑洞宅으로 방문하고 약속하며 활동하기를 권하는 말끝에 ‘우리 청년들이 학병으로 나가서 죽은 그 핏값을 받자! 고 하였다. 그러나 古下는 그에 응치아니하고 그 친구도 나서지말라고 만류하였던 것이다.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古下는 참으로 「로맨틱」(虛浪)하오. 李 박사가 미국 군함이 나 타고 仁川港에나 들어올 줄 아오?』하였다. 그랬더니 古下는 변색하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피는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값은 네가 받는단 말이야?』하였다. 그날부터 선생은 이불을 펴고 들어누워서 문밖에 나오지 않고 해방되기까지 一년동안이나 계속 하였다. 金俊淵, 앞의 『古下·宋鎮禹』, 178-179쪽. 김준연이 소개한 송진우와 안재홍의 대화에서, 안재홍과 여타 다른 인사의 친일 행적이 거론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金俊淵, 『變動된國際情勢』(6)·(7), 『東亞日報』, 1947. 3. 29·30에서도 동일한 일화를 소개하였다.

12) 이 협의 내용은 安在鴻, 「民政長官을 辭任하고」, 『新天地』(1948년 7월호)(安在鴻選集刊行委員會 編, 『民世安在鴻選集』2, 知識産業社, 1983, 261·268쪽). 앞으로 『民世安在鴻選集』을 『選集』으로 줄임.

13)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196쪽; 서중석, 「안재홍과 송진우」,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라이벌』, 역사비평사, 1992, 70쪽.

14) 이하 안재홍의 제안을 서술하는 내용은, 김인식, 앞의 책, 44-49쪽을 참조.

그러나 송진우는 전후 미국 중심으로 세계체제가 재편되리라고 전망하는 한편, 중경임정이 환국하여 집권하면 민족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낙관하면서, 안재홍이 제안하는 바를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안재홍이 회고한 송진우의 정세판단은 다음과 같다. 현정세는 미국이 전세계를 영도하고 있다 ; 소련은 미국이 요청하자 코민테른도 해산하였고 세계혁명운동도 폐기하였다 ; 전후의 국가재건을 위해서 소련은 앞으로도 미국에 협조함이 분명하다 ; 중경임정은 연합국 여러 나라의 승인을 이미 얻었고, 10만의 독립군을 거느리고 있으며, 미국과 10억 불의 차관 교섭을 성립시켜 놓았다 ; 중경임정이 국내에 들어와 친일파 거두 몇 명만을 처단하고 行號施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sup>15)</sup> 안재홍의 회고를 한마디로

15) 윤덕영은 안재홍의 회고를 세 가지로 가정하였다. 첫째, 만약 안재홍이 회고한 대로, 송진우가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자신이 중경임정을 지지함을 합리화하기 위한 데마고기이다. 둘째 안재홍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송진우가 설득을 위해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다. 셋째, 1948년의 시점에서 안재홍이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부풀려 말했을 수도 있다. 윤덕영, 앞의 논문, 2011, 256쪽. 송진우가 안재홍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면, 송진우를 찾아간 안재홍도 송진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이지만, 이러한 가정은 양자의 주관에 속한 영역이므로 가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정치인의 회고담에는 자기 합리화의 언설이 다분하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함도 많으므로, 안재홍의 회고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진우가 이와 관련하여 직접 회고를 남기지 않았고, 간접 자료인 송진우의 전기에는 송진우와 안재홍의 만남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술하였으므로 진실 자체를 가리키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는 향후의 행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해방정국에서 송진우가 중경임정을 ‘絶對支持’—송진우의 표현이다—하였음은, 송진우가 발표한 성명 등에서 그대로 증명된다. 안재홍이 회고한 송진우의 임시정부 지지론은 송진우의 언설에서도 입증되므로, 송진우의 중경임정관에 한해서는 안재홍의 회고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없다. 후술하듯이 한민당의 발기인 ‘성명서’가 중경임정을 과대평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실 자체를 왜곡한 데마고기를 퍼뜨렸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동아일보』의 취재부장을 지냈던 崔興朝에 따르면, 한민당은 “重慶臨時政府가 十五萬의 光復軍을 先頭로하고 還國할것이다”라는 威壓의前提 밑에 呂運亨 安在鴻等과의 ‘建準’을 拒否”하고 발족하였다. 崔興朝, 『民主國民黨의内幕』, 三八社, 1952, 15쪽. 최홍조가 한민당을 비판하는 시각에 입각하였더라도, 이러한 기술은 송진우의 중경임정관과 관련한 안재홍의 회고가 사실에 가까움을 보여준다.

줄이면, 송진우는 중경임정이 환국하여 집권하면 민족문제가 모두 해결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 안재홍이 회고한 바에 의거하여 판단하면, 사이판전투의 결과가 국내의 민족지도자들에게 전해지던 1944년 7월경, 송진우는 일제패망의 시기에 중경임정을 대체권력으로 이미 상정하고 있었다. 그는 일제의 패망과 동시에 중경임정이 연합군과 함께 국내에 곧바로 진입하여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낙관하였다. 이는 8·15해방 후 송진우를 비롯한 우익 세력들의 행보로 증명되는데, 안재홍이 송진우에게서 ‘중경임정 절대지지론’을 확인한 시점은 바로 1944년 7월 무렵이었다.

송진우가 중경임정을 대체권력으로 상정한 시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가 중경임정을 대체권력으로 생각하였음은 그의 육성이 직접 증명한다. 송진우는 사망하기 9일 전인 1945년 12월 21일, 한민당의 정견을 발표하는 방송에서 서두를 다음과 열었다.

(자료 3)

②韓國民主黨의 政綱政策을 말씀드리기前에나는 本黨發足當時의 政治的情勢와그必然的結果로서 規定된 本黨의使命을簡單히 말씀하므로써여러분이 本黨의 性格을 把握하시고本黨의進路를 理解하시는데參考가되게 하려합니다여러분도 아시는바와같이八月十五日에 日本이世界의自由民에게 降服한다는消息을傳하자 朝鮮內에는一大衝動을이르겠습니다 그것은解放과自由의熱狂의歡喜이엇습니다 그때에 우리는未久에 聯合軍이進駐하여 日本軍의武裝을 解除하는同時에 그뒤를이어들어오는우리臨時政府에 계行政權을비롯하여 國防外交の大權을 引繼하리라고생각하였든것입니다…16)

16) 송진우의 정견발표를 보도한 『東亞日報』 기사를 타 신문과 비교하더라도, 자사 사장의 방송 연설을 가장 많이 생략하여 보도한 점이 의아하다. 특히 방송의 첫머리인인 ②부분을 다 삭제하여 ‘(前略)’이라 처리하고, 곧바로 “八月十五日以來事態는樂觀을 不許한 바잇었스니…”로 시작하였으므로, 송진우가 무엇을 ‘낙관’하였는지 알 수

㉞그러나當時의事態는樂觀을 不許한바잇었으니 聯合軍의 全面的進駐가 遲延되었고 中間隔은반드시우리 全民族의自由와秩序를爲하야 充實히 利用되었다고 만볼수없습니다 다시말하면 一部の行動은明朗할 民族的去就를 混沌케하였고 歸一할民族의思想을 妨害하였습 니다 이에우리는 敗殘 日本帝國主義의援護下에서 發生된一切政權을 斷乎히否認하고 友邦聯合軍의 進駐를따라서歸國할 大韓民國臨時政府를絶對로 支持한다는 大義名分의旗幟下에서 結黨하였읍니다<sup>17)</sup> (밑줄은 인용자)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위의 자료가 한민당 결당과 관련하여 송진우가 육성으로 남긴 유일한 現傳 자료이다. (자료 3)에서 “낙관을 불허” 운운 함은 에두른 표현으로, 송진우 자신이 정세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시인이 기도 하지만, 그가 중경임정을 대체권력으로 구상하였음을 증명한다. 한민당이 창당된 지 3년여 지난 시점에서 발간된 『韓國民主黨小史』(앞으로 『小史』로 줄임)에 따르면, 8·15해방이 되자 향후 국내 정세가 전개 되는 향방을 달리 예측하는 두 개의 정치집단이 생겨났다. 하나는 “韓國民主黨, 國民大會準備委員會를 構成한人員들”이었고, 또 하나는 “呂運亨을中心한 建國準備委員會派”였다. 전자는 “朝鮮에는聯合軍이即時進駐하야 日本軍의 武裝을解除하고 『海外우리臨時政府가들어와 政權을 執行할것으로 생각하였다』” 후자는 “聯合軍이들어오되 『朝鮮內에있는 政治團體에行政上權限을 매껴서 그것으로하여금 朝鮮에政府가 되게할 것으로믿었다』”<sup>18)</sup> 『小史』 역시 송진우가 식민지시기부터 중경임정을 해

---

없게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앙신문』을 참조하지 않고 『동아일보』 기사만을 인용하였을 경우 ㉞부분을 몽땅 빠뜨렸다.

17) 「四大政黨의政見發表」, 『中央新聞』 1945. 12. 22에 전문이 실려 있다. 타 신문들도 송진우의 정견발표를 보도하였는데, 『中央新聞』과 비교하면 부분부분 생략한 데가 있으나, 신문사 자의로 내용을 요약하지는 않았다. (자료 3)은 『中央新聞』을 저본 삼아 다른 신문들을 참고하여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나 띄어쓰기 등은 그대로 옮겼다.

방 공간의 대체권력으로 상징하였음을 보여준다.

“聯合軍의 全面的進駐가 遲延되었고 間隔은…”이라는 구절은, 연합군이 예상외로 늦게 진주하면서 建準-人共이 민족의 거취를 혼란케 하였고, 민족사상의 歸一을 방해하였다는 뜻이면서, 송진우가 建準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는 일제가 항복한 이후 곧바로 연합군이 진주하고 중경임정도 뒤따라 입국하리라 예상하였으므로, 建準이 활동할 시간이 매우 짧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제 패망이 더욱 확실해졌으나 향후 사태의 전개는 전혀 예측을 불허하는 위급한 시기에, 굴지의 민족지도자가 행동에 나서지 않은 자체가 정작 커다란 민족문제였다.

그러나 송진우는 建準-人共을 “敗殘日本帝國主義의 援護下에서 發生”하였다고 비난하면서도, 연합군의 진주가 ‘지연’됨으로써 생겨난 ‘간격’ 즉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자신이 민족지도자로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송진우는 8·15해방 후에도 ‘침묵’을 지키다가 미군 진주가 확정된 시점이 되어서야 민족지도자를 자처하며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이러한 행동의 괴리를 송진우 자신의 말로 합리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민당은 미군이 남한에 진주한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미군이 진주한 이후 결당하였다. 이때는 중경임정이 미군을 곧바로 뒤따라 입국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된 상황이었다.

(자료 3-㉔)에서 밑줄 친 부분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先生傳』에 나오는 구절((자료-7)의 밑줄을 참조)과 거의 일치하는 정세판단이었다. (자료 7)로 인용한 『先生傳』에는 중경임정이 ‘해외에 있는 선배 동지’로 대체되었지만, (자료 3)에 의거하면 송진우는 8·15해방 전부

18) 金俊淵 編輯 兼 發行, 『韓國民主黨小史』, 韓國民主黨宣傳部, 1948. 9. 25, 1쪽.

터 ‘절대지지론’을 구상하고 있었다.

여기서 1944년 7월 송진우와 안재홍의 만남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재홍의 회고와 『先生傳』이 전하는 이 날의 언쟁은 내용과 각도에서 사뭇 달랐다. 『先生傳』과 안재홍의 회고에서 ‘피’·‘유혈’이라는 동질의 단어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先生傳』에 따르면, 송진우는 안재홍의 제안을 동포들의 ‘피값’을 이용하려는 권력욕으로 치부하였다. 이때 ‘피’는 안재홍의 권력욕을 경고하기 위한 ‘동포들의 희생’이었다. 반면 안재홍이 말하는 ‘유혈참극’은 한일 양민족이 충돌할 경우 단말마 같은 일제가 자행할 대량 학살이었으며, 이를 예방하려는 우려에서 비롯된 용어였다.<sup>19)</sup>

『先生傳』이 전하는, 안재홍을 향한 송진우의 노기 띤 언사는 한민당의 발기인 「성명서」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논리였다. 송진우의 언사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바는, 송진우는 일제필망의 시기에 ‘무슨 운동’이 있으리라 예견하였고, ‘대책무책론’으로 두문불출하면서도 ‘무슨 운동’이 권력욕에서 발동한 부역 행위라고 단죄할 논리도 예비하였다.

“亡해가는 놈의 손에서 政權을바더서 무슨所用이있겠느냐”는 말에서 보듯이, 송진우는 일제가 패망하는 시점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연합국은 물론 국내 한국인과도 교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분명하게 예상하였다. ‘자치’·‘독립’을 순차로 운운한 데에서, 연합국이 국내에 진주하기 전 일제가 한국인에게 일정한 제한 아래 권력을 위임·이양하려는 사태도 예견하였다. 이는 김준연과 『先生傳』이 주장한 대로, 일제가 여

19) 안재홍은 “流血防止 一款만이라도 나는 一貫 力說하였고, 그것이 建國準備委員會의 출현된 주요한 과제인 一項目이었다.”고 강조하였다. 「八·一五 당시의 우리 政界」(1949. 9 『새한민보』), 『選集』 2, 472쪽. 8·15해방 직전 안재홍은 여운형과 시국에 대처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방정국을 수습할, 적어도 유혈충돌만은 방지할 수 있는 조직체가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하였고, 이러한 의도에서 여운형과 함께 建準을 결성하였다. 김인식, 앞의 책, 55쪽.

운형에 앞서 송진우와 4차례 교섭을 시도한 사실에서도 증명되었다.

그러나 일제필망 자체가 한국의 독립을 의미하므로, ‘망해가는 놈’이 ‘독립’을 ‘미끼’로 준다는 판단은 모순형용이다. 한국이 독립할 국내의 조건이 성숙하였고 일제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송진우는 일제 필망의 시기에 대책무책론으로 保身하는 處身을 자기방어하는 한편, 일제패망의 시기 등장할 한국 내의 대체권력을 친일부역한 ‘허수아비 정권’으로 등치시켰다. ‘승세하는 놈’과 ‘망해가는 놈’의 힘의 차이를捨象함으로써, 적에게 부역·반역하는 행위와 권력을 이양받아 접수하는 행위를 동일시하는 논리는, 자기방어와 정적제거의 두 가지를 내포한 산술이었다. 송진우는 한민당 발기인 성명에 활용된 친일 데마고기를 8·15 해방 전에 이미 마련하였다.

송진우는 1945년 6·7월을 ‘일제필망’의 날로 예측하기도 하였다.<sup>20)</sup> 『先生傳』에 따르면, 송진우는 “신념화한 일제 필망론(日帝必亡論)의 「七월 예측」이 빛나”가자, 8월에 접어들면서 “얼굴에 수심과 초조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 때문에 “예언에 대한 자신마저 잃었다.”<sup>21)</sup> 반면 일제필망을 확신한 조병옥은 향리에서 ‘예언자’라는 예찬까지 들었다.<sup>22)</sup>

20) 1944년 가을 무렵 송진우는, 薛義植이 단파 라디오로 얻어들은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전해들었다. 또 독일이 항복(1945년 5월)하기 전후, 일본 외무성 사무관으로 있던 張徹壽에게서 카이로 선언·포츠담 협정·알타 협정·대서양 현장 등 세계정세와 각국의 동향을 자세히 들었다. 송진우는 “대세는 다 결정되었는데 뭘 …… 그래도 일본에도 정치가가 있을 것이니 국민을 더 죽이기 전에 끝을 내려고 할 게 아닌가. 六·七월은 더 넘지 못할 것이야.” 하며 전쟁의 종말이 가까워 옴을 더욱 분명하게 예언했다. 그러나 일제의 최후 발악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송진우의 稱病도 극에 달했다. 그는 즐기지 않는 담배를 피워 물고 누워서, 귀찮다는 듯이 담배 연기만 내뿜거나, 침실에 홀로 앉아서 骨牌를 만지며 소일했다. 『先生傳』, 290-292쪽; 『傳記』, 419-422쪽.

21) 『先生傳』, 294쪽; 『傳記』, 423쪽.

22) “나自身은 日本敗亡論에 對하여 일찍부터 看破”하였다는 조병옥은, “당시 나는 古下 宋鎮禹先生과 함께 日本必亡信者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향리

필망의 시점을 예상하였으나 여부의 차이는 있었지만, 송진우·조병옥 두 사람은 ‘日本必亡信者’였다. 그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혹독한 일제 말기를 휘절하지 않고忍苦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일제필망’은 신념과 신앙의 영역이었으므로, 保身하는 處身策 외에는 必然事에 대처할 방안은 모색하지 않았다.

여운형·안재홍도 일제필망을 확신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자신들이 일제필망론자였음을 그다지 강조하여 부언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하면, 송진우·조병옥이 일제필망론을 重言하는 이면에는, 자신들이 혹독한 일제 말기에 친일·휘절하지 않고 인고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일제필망에 대처하지 않은 자신들의 無策을 합리화하려는 속뜻이 보인다. 『先生傳』이 기술하였듯이, 송진우는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 당한 뒤부터 8·15해방 당일까지 “병을 핑계하고 서울 원동(苑洞) 자택에서 만 五년간 거의 두문불출(杜門不出)의 세월을 보냈다.”<sup>23)</sup>

---

인 천안에서 ‘疏開生活’을 하였을 때도 洞里사람들에게 일본패망론을 말하였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조병옥을 쳐다보던 향리 사람들은, 해방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그를 가리켜 “豫言者라고 하면서 別사람이라는 소리까지 하였다.” 趙炳玉, 『나의 回顧錄』, 民敎社, 1959, 130, 141-142쪽.

- 23) 『先生傳』, 293쪽; 『傳記』, 423쪽. 이현주는 여운형이 주도한 朝鮮建國同盟에 대비시켜 “송진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우파도 이제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동아일보 지국 등 조직을 유지하면서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도 비밀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송진우가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가 폐간된 뒤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제가 폐망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수수방관하지는 않았다. 1943년경 그는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아일보 관계자 및 지방 유지들을 만났다. 이 전국 순회에서 그는 동아일보 관계자들의 내부결속과 태평양전쟁과 일본의 패전을 전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송진우가 중경임정과 연락을 취하였다는 가장 중요한 전거-‘수수방관’하지 않았음을 증명할-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이현주는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건국동맹의 사례와 비교하여 종전 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대책이 무책’이라는 핑계로 침묵만을 지켰다고 보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국내에 동아일보만큼 전국적인 연락망을 가진 조직은 없었다”고 강조하였는데, 동아일보사 지국의 규모와 명맥을 유지한 사실이 항일운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설명하

이 무렵 민족지도자 송진우의 행보는 자신들의 측근·지인들과 일제필망의 신앙을 공유하는 데 머물렀다.

### Ⅲ. 8·15당일 송진우의 사랑방 公論: 현상유지책과 연합국 직접상대론

김준연에 따르면, 8·15해방 전날인 8월 14일 여운형 측이 김준연을 통하여 송진우에게 협동을 요청하였고, 김준연은 당일 밤 송진우에게 이를 전하였다. 송진우는 이를 거절하면서, “總督府側으로부터 四次나交渉을받었는데 그것을 拒絕하였은즉 지금 다시 應諾할수도없고, 聯合軍이 들어오기前에日本사람의손에서政權을받는다는 것은不可한것이기때문이라고하였다”<sup>24)</sup>

『先生傳』에 따르면, 송진우는 8월 14일 일제 관헌의 ‘4次 방문’을 받고서야 “면담을 응낙”했고, 경기도지사실에서 이쿠다 세이사부로우(生田清三郎) 지사와 대면했다. 이쿠다는 송진우에게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협력해 달라고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만약 송진우가 승낙한다면 “현재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四分의三 즉 헌병(憲兵), 경

---

지 않았다. 이현주, 앞의 논문, 15-16쪽. 이현주는 송진우가 수수방관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1943년경 송진우의 전국 순회를 들었지만, 정작 『先生傳』은 송진우의 전국 순회가 동아일보사의 지국을 조직화하려는 목적이었다고는 서술하지 않았다. 『先生傳』, 286-287쪽; 『傳記』, 415쪽. 무엇보다도 “대책이 무책”·“만 5년간 거의 두분볼출”·“침거”라는 말은 송진우의 최측근인 김준연과 『先生傳』이 전하는 일제 말기 송진우의 동향이였다. 송진우가 일제필망 이후를 대비하여 동아일보사의 연락망을 조직화하려 하였고, 또 행동의 진전으로 이어졌다면, 김준연 등이 이를 기술했을 리 없다.

24) 金俊淵, 앞의 「解放과政治運動의出發」(二).

찰(警察), 사법(司法), 통신(通信), 방송(放送), 신문(新聞) 등을 넘겨 주겠소.”라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송진우는 다음과 같이 대꾸하였다.

(자료 4)

내가 중국의 왕조명(汪兆銘)이나 불란서의 「페탕」이 되고자 한다면 벌써 됐을 것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사양한다느니 보다는 만일 내가 왕조명이나 「페탕」이 되어 버린다면, 당신네가 일본으로 떠난 뒤에 나는 조선 민족에게 발언권(發言權)이 없어지지 않겠소. 그리고 멀지 않아 조선은 일본과 국교도 맺어야 할 것인데, 지금 목전의 이익만 생각하다가는 도리어 앞으로의 큰 경륜을 잃을 염려가 없지 않소. 한 사람의 올바른 지일(知日)하는 인사라도 남겨 두어야 하지 않겠소?”<sup>25)</sup>

生田가 총독부 권력의 4분의 3까지 운운했다는 제안이 사실이었느냐를 떠나서, (자료 4)에는 당시 송진우의 정국 구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다. 송진우가 협력을 거부하며 내세운 이유에, 향후 정국을 구상하는 그의 속내와 밑그림이 보인다.

우선 송진우는 조선총독부의 요청을 거절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식민지시기 끝무렵 동아일보계는 대개가 황국신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참여하였으므로, 총독부 관료가 권유한 대로 협조하였더라면, 王兆銘·페탕 등과 같은 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다.<sup>26)</sup>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송진우는 일제가 패망한 뒤에 조선민족 내에서 발언권을 갖으려고 의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설사 협력 요청을 거부하려는 핑계였다 하더라도 그는 知日家を 자처하면서, 독립한 한국이 패망한 일본과 국교를 체결하는 미래 상황까지 벌써 상정하고 있었다.

25) 『先生傳』, 298쪽; 『傳記』, 429쪽.

26) 서중석, 앞의 책, 196쪽.

‘망해가는 놈’이 ‘망한 놈’이 되기 하루 전, 행정권의 이양과 접수 문제가 실제 상황으로 부각하면서 여운형·안재홍은 송진우 측에게 협력을 제안하였다. 여운형은 일제가 패망한 뒤의 공백기에 송진우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함께 대처하기를 요청하였다. 바로 이 지점에, 대책무책론으로 일관했던 송진우와, 건국동맹으로 ‘건국’을 준비한 여운형을 구획하는 또 하나의 가름점이 놓였다. 여운형은 송진우의 역량을 인정하여 협력하려는 개방성을 가졌다. 그러나 송진우는 ‘망한 놈’에게서 권력을 접수하려는 이들을 폐탕·라우렐로 매도하면서 거절하였다. 『先生傳』 등에는 송진우가 여운형의 협력을 거절한 이유를 여기까지만 언급하였지만, 실상 송진우의 주변에는 그를 뒷받침하여 시국에 대처할 주체 세력이 당장 존재하지 않았다.

이 무렵 한민당 창당의 주역 또는 핵심 인물들은 각개로 산재하여 전혀 구심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송진우의 최측근인 김준연이, 1945년 8월 경기도 연천에서 서울로 들어와 “제일먼저찾아야할 古下선생을심방한 것은二三日후인 十三日 저녁이었다”<sup>27)</sup> 김병로는 8월 15일 해방의 소식을 듣고서, 8월 16일 송진우의 사랑방을 찾았다.<sup>28)</sup> 조병옥은 8월 15일 “일제의항복방송을듣고나서종일토록숨어있는 동지들을찾기에 분주했다.”<sup>29)</sup>

한민당으로 결집하는 세력들은 일제필망을 확신하면서도 이렇게 아무 구심력 없이 해방을 맞이했다. 『傳記』에 따르면, 建準 결성을 서두르는 여운형이 송진우를 직접 찾아가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때 송진우는 다음과 같이 여운형의 “輕舉를 타일렀다.”

27) 「8·15와 나③金俊淵氏」, 『東亞日報』 1954. 8. 13.

28) 「8·15와 나②金炳魯氏」, 『東亞日報』 1954. 8. 12.

29) 「8·15와 나④趙炳玉氏」, 『東亞日報』 1954. 8. 14.

## (자료 5)

일본이 항복을 했다고는 하나 군사력과 경찰권은 그대로 갖고 있소.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힘이 없는 한 총독부를 상대로 행정권을 이양받는다든 것은 결국 그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몽양(여운형의 아호임: 인용자)은 가볍게 움직이지 마시오.<sup>30)</sup>

일제가 항복 선언을 하는 당일, 송진우는 한국민의 무장력이 일제의 무력을 제압할 힘이 없는 한 행정권을 접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일제의 ‘군사력’과 ‘경찰권’은 송진우의 처신에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일제의 총검이 아직도 절대 권력으로 현존하는 위협이므로 자중해야만 했다. 또 하나는 시국수습에 나서는 여운형 등을 친일 행위로 비난할 근거였다.

(자료 5)에서는 (자료 2)의 ‘허수아비정권’이 ‘심부름’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일제와 여운형을 연결시켰다. 이 날 송진우는 일왕의 항복 방송을 들은 뒤, 그의 집에 몰려드는 인사들과 냉수로 해방의 축배를 들면서, “폐탕이 돼서야 …… 라우렐이 되다니…… 몽양 그 사람…… 쫓쫓……” 하며 안타까워 하였다.<sup>31)</sup>

여운형의 최측근인 이만규에 따르면, 여운형은 8월 15일에 송진우를 설득하기 위하여 李如星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다음에는 자신이 직접 가서 ‘힘 있게’ 협력하자고 권하였다. 그러나 송진우는 끝끝내 “輕舉妄動을 삼가라. 重慶政府를 지지하여야 된다.”며 합동을 거절하였다.<sup>32)</sup> 이만규의 기술에서는 ‘라우렐’·‘폐탕’·‘심부름’ 등 친일몰이가

30) 『傳記』는 날짜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 문맥상 8·15해방 당일 오전경으로 보인다. 『傳記』, 439쪽. 『先生傳』은 이 대목을 기술하지 않았다.

31) 『先生傳』, 301쪽; 『傳記』, 437쪽.

32) 李萬珪, 『呂運亨先生 鬪爭史』, 民主文化社, 1946, 204쪽.

보이지 않고, “경거망동 말라”는 이유가 중경임정 지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先生傳』과 다르지만, 송진우가 建準을 결성한 여운형의 행보를 경거망동으로 비판하였음은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先生傳』에 따르면,<sup>33)</sup> “해방된지 이틀째인 十七일 오후 二시 몽양은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원동으로 고하를 찾았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단독 회담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8월 17일 여운형·송진우의 만남이 대중들에게 공개된 첫 번째 회담이었다. 이때의 방문은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키어 일반은 물론, 신문기자가 떼를 지어 모여 들었다.” 여운형이 송진우에게 자신을 ‘폐탕’이라고 지칭한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자, 송진우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자료 6)

몽양을 가리켜 한 말은 아니오. 이런 시기에 정권(政權)을 물려 받으면 「폐탕」이 되기 쉽다고 했소. 정권은 국내에 있던 우리들이 받을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이 물러나고, 해외에 있던 선배들과 손을 잡은 뒤에, 절차를 밟아서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오. 그 때가 되어 몽양이 생각이 있다면 내가 극력 몽양을 추천할 것이니 지금 정권 수립을 보류했으면 싶소.

송진우는 建準을 출발시킨 여운형의 행동이 권력욕에서 기인하였음을 은연 지적하며, 자신은 초연한 듯 정권수립의 방식을 제시하면서, 여운형이 동의한다면 적극 추천하겠다는 타협안까지 내놓았다. 여운형이 “어째서 꼭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정권을 받아야 하오. 고하와 나와 둘이 손만 잡는다면 그만한 세력은 없을 것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세력도 우리들

33) 『先生傳』, 308-309쪽; 『傳記』, 447-448쪽.

속에 흡수될 것이고 해외 인사라고 해도 별로 문제될만한 사람은 없소.”라고 반박하자, 송진우는 “의리상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소.”라며, 의리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여운형이 “그러면 그 동안은 국내는 진공 상태(眞空狀態)로 둘 생각이요.”라고 반문하자, 송진우는 “몽양은 내가 보기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그러나 자칫하면 그들에게 휘감기어 공산주의자도 못되면서 공산주의자 노릇을 하게 될 위험성이 없지 않소.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답하였다. 이렇게 建準이 조직된 이후에도 여운형과 송진우 양 측의 교섭이 직간접으로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송진우 측이 ‘절대지지론’을 내세움으로써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말았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자료 6)에서 송진우가 제시한 방안에는 고려하지 않은 공백이 있었으므로, 여운형은 이 부분을 송진우에게 질문하였다. 여운형은 일제 패망 이후 연합군이 진주하기까지의 진공 상태를, 한민족이 주체가 되어 당면함이 당위라고 생각했다. 연합군이 진주하기 이전 일제 식민지통치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한민족이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식민지 지배의 연장일 뿐이었다. 여운형은 연합군 및 해외의 혁명세력이 입국하기 전 국내의 진공상태에 대처하는 방식을 물었는데, 송진우는 여운형이 공산주의자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충고로 동문서답하였다.

『先生傳』과 『傳記』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은, 송진우에게 더 큰 관심사는 연합군이 진주함으로써 종식될 일시의 ‘진공 상태’보다도, 연합군이 진주한 이후 전개될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추론컨대 이 불확실성이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송진우로 하여금 ‘관망’을 지속케 한 요인이었다. 8·15해방 당일 송진우는 사랑방에 모여든 그의 동지들에게 (자료 1~6)으로 인용하였던 대책들을 종합한 시국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관망이 예의주시하는 초점이 아주 또렷하였음을 보여준다.

『先生傳』과 『傳記』에 따르면, 8·15해방이 되자 “그 동안 서로 찾기

어려웠던 동지들이 물밑듯이” 송진우를 찾아들었다. 이 중 ‘뿔뿔 동지들’은 “고하가 총독부 측의 정권 인수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몽양에게 세력을 빼앗긴 것처럼 분개하여 그 거절 이유를 힐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에 송진우는 다음과 같이 “그의 정치적인 식견과 지론(持論)을 설명했다.”

(자료 7)

아직 일본이 연합국측에 항복하겠다는 것뿐이지…… 일본의 세력은 국내에 엄연히 남아있지 않소. 말하자면 일본군이나 경찰을 물리칠 힘이 있소. 이러한 때 정권을 받는다는 것은 독일 점령 당시의 불란서의 「폐탕」정권이나 일본에 잡혀있는 비올빈 「라우렐」정권이나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소.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을 이행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당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왔어도,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욕(政治的 利慾)에만 취해서는 안되는 것이요. 연합군이 상륙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한 후에 연합국과 논의해서 건국을 한다 해도 조금도 늦을 것은 없는 것이요. 더욱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인사만으로 불합리한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오랫동안 국외에서 풍찬 노숙(風餐露宿)하던 선배 동지들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오. 더구나 일본 세력이 엄연히 있는 이때, 그 세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일본 세력의 연장이며 일본이 잘못된 것을 일본의 뜻을 받들어 뒤치다꺼리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겠소. 미구에 연합군도 들어오고 해외에 있는 선배 동지들도 귀국하게 될 것이니 그 때까지 마음의 준비와 현상 유지를 하면서 기다립시다. (밑줄은 인용자)

후술하듯이 송진우 전기에 의거해, 송진우가 남한에 미군이 진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8월 20일경임을 감안하여, 8월 15일 당일의 발언인 (자료 7)을 해독할 필요가 있다. 송진우는 일제가 항복하였더라도 무장력이 그대로 현존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함은 일본 정권의 연장이

라는 주장을 여전히 내걸었다. 일본이 항복한 8월 15일의 시점에서는, 해외의 혁명 선배들까지 배려하는 의리론을 곁들여, 국내 인사만으로 구성된 建準의 불합리성을 더하여 공격하였다. (자료 7)에는 중경임정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료 3)을 참고하면 국외의 ‘선배 동지’들은 중경임정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송진우가 建準에 대항하기 위하기 위하여 제시한 논리는 建準친일론과 중경임정추대론이었다.

일제와 建準을 동질의 성격으로 논쟁화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시기 여운형·안재홍이 일제와 접촉한 사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한민당 발기인 「성명서」에서 증명되듯이, 송진우의 복선은 건준을 주도한 여운형·안재홍 등의 친일 행적을 들어 이들을 배격하려는 데 있었다. 이는 권력의 공백기에 무엇을 하였느냐는 공박에 대비한 방어이면서, 建準이 ‘국민’의 기반도 없이 단지 권력욕에서 발동한 친일정권이라고 매도하는 논리이기도 하였다.

2차세계대전의 전황을 인지하고 있는 식자라면, 일제가 패망한 이후 연합군이 국내에 진주하여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한 뒤 당분간 군정을 실시하리라는 사실은 예견하기 어렵지 않았다.<sup>34)</sup> 여운형·안재홍 역시 연합군이 진주하기 전 국내의 민족운동 세력이 국내의 질서를 정돈한 후, 연합군에게 한민족의 자주력을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建準을 출발시켰다.

34) 이를테면 8월 17일 평안남도 建準을 출범시키고 위원장을 담당한 조만식은, 당일 建準의 사명을 밝히고 道民들에게 당부하는 글의 서두를 “36간의 일본 통치관계가 마침내 금일와서 분리하게 되었고, 또 소련과 미·영군(米英軍)이 상륙하는 동시에 해외 정부가 들어오게 된 바, …”라고 시작하였다. 조만식(평양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과거의 소사(小事)는 청산하고 동포여 건국에 돌진하자-건국준비위원회의 사명」(1945. 8. 17), 『평양매일신문』호외(1945. 8. 18)(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업회 편저, 『고당 조만식 회상록』, 조광출판인쇄주식회사, 1995, 443쪽). 8월 17일의 시점에서는 남북 분할점령 사실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소련군의 참전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만식은 소련·미국·영국의 연합군이 진주하고 중경임정도 곧 귀국하리라 생각하였다. 이 점은 송진우와 같은 정세 인식이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이 향후 전개될 국내외 정세를 오관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은 결과에서 증명되었지만, 外力보다는 민족의 주도력을 선행시키려는 정책에서 출발하였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자료 7)의 밑줄에서 송진우는 한민당 계열이 향후 해방정국을 일관할 중요한 시국대처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현상유지책과 연합국직접상대론이었다. 송진우는 일본이 항복한 후에도 일제의 총독정치를 그대로 현상유지하면서 연합군이 국내에 진주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자료 7)에서 ‘현상유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본 행정 당국은 연합군이 진주할 때까지 현상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을 명령 지시”한 미군의 뼈라대로<sup>35)</sup> 조선총독부 체제를 가리켰다. 한민당 구성원들이 총독정치를 20여 일 동안 방기한 행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총독정치의 현상유지를 거부한 建準을 일제정권의 연장으로 재삼 동일시할 필요가 있었다.

송진우는 연합국의 대한정책이 결정되는 때를 자신이 정국을 주도할 계기로 인식하였다. 연합국의 대한정책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총독정치로 현상을 유지하되, 연합군이 진주하여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연합국을 직접 상대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시국 대처 방안을 구상하였고 측근들에게 제시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중경임정을 절대지지하는 방식으로 중경임정의 정통성을 자신들과 동일시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로써 建準·人共을 괴뢰정권으로 비난하면서 견제하였다.<sup>36)</sup>

“연합국과 논의해서 건국을 한다 해도 조금도 늦을 것은 없는 것이오.”라는 태연함은, 연합군이 진주하면 建準이 ‘3일천하’에 끝날 수밖에 없음을 예견한 정세판단에서 비롯된 여유였다. 연합군이 진주함은 필연사이고, 이후 建準의 존재 여부는 미지수이므로, 송진우는 建準에 가입

35) 『先生傳』, 307~308쪽; 『傳記』, 445~447쪽.

36) 金仁植, 앞의 논문, 132쪽.

하지 않고 연합군과 직접 상대하려 하였다. (자료 7)에 의거하면, 송진우의 정국 구상의 함수에서 연합군이 독립변수였고, 중경임정은 建準의 비합리성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종속변수였다. 송진우가 주체가 되어 ‘건국’을 ‘논의’할 상대는 ‘연합국’이었다. 송진우가 자신의 사랑방에 집결한 동지들에게 시국대처 방안으로 제시한 연합군 직접상대론은, 이후 미군정에 밀착하여 미군정의 여당으로 자리잡고 나름의 권력을 장악하는 송진우·한민당의 정치행태와 일치한다.

8·15해방 이후 송진우는 결코 정세를 ‘관망’하지 않았다. 이 시기 그가 시국을 ‘관망’하였다고 보는 시각은 위의 인용한 구절을 눈여겨보지 않거나, 연합국 상륙만을 기다렸다는 정도로 해석하였다. 그는 연합국의 정책이 확인되는 날을 자신이 활동할 기점으로 다짐하면서 연합군이 상륙하기를 待望하였다.<sup>37)</sup> (자료 3)에 의거해 추측하면, 송진우가 연합국의 상륙을 기다리는 동안 식민지통치가 연장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결여하였거나 또는 비중있게 생각하지 않은 이면에는, 일제가 항복하는 즉시 연합군이 상륙하고 중경임정도 뒤이어 입국하리라고 ‘낙관’하였기 때문이다. 여운형이 미군정을 상대하기 위해 人共을 급조한 행보가 정세를 낙관하여 오판한 오류였듯이, 송진우의 낙관은 建準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남한에서 총독정치를 9월 8일까지 존속시킬 수밖에 없는 오판이었다.

『先生傳』에 따르면, 8·15해방 직후 민족주의자를 자임하는 세력들이 建準에 대항하여 각기 小黨을 결성하자마자 곧바로 연합체를 형성하려 시도하면서 영도자가 필요하였다. 衆論이 송진우에게 집중되었으나, 송진우는 “아직 정당 조직의 시기가 아니라고 극력 반대했다.”<sup>38)</sup> 이와 관련하여 김준연은, 송진우가 정치활동을 시작한 계기와 시점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37) 金仁植, 앞의 논문, 131-132쪽.

38) 『先生傳』, 318쪽; 『傳記』, 458쪽.

(자료 8)

그리고一方에는 宋氏(송진우를 가리킴 : 인용자)를中心으로하여 國民大會를準備하게되었다 오랫동안 沈黙을지켜오다가 八月三十日에와서야 美軍이九月七日에 京城에들어온단말을듯고 急速히 이計劃을進行하게된 것이다 國民大會의主旨는 重慶에있는 大韓民國臨時政府絶對支持를明白히 表示하자는것이다<sup>39)</sup>

김준연은 8개월여 뒤 해방 1년의 정치활동을 회고하면서, “宋鎮禹氏는 八月末에와서야 겨우 活動을 開始하였다. 聯合軍이 九月七日에 京城에 들어온다는것이確實히 알려진때이었다, 國民大會準備會를發起하였다.”<sup>40)</sup>라고 (자료 8)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판단하면, 송진우는 미군이 남한에 진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미흡했는지, 9월 7일<sup>41)</sup> 서울에 진주한다는 날짜까지 8월 30일께 확인하고 서야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첫 활동의 출발점인 국민대회준비회를 왜 9월 7일에 발족하였는지를 설명하여 준다. 이는 송진우 자신의 말로써도 입증된다.

(자료 9)

解放과自由를어든 八月十五日以後내가 主張한것은 그當時重慶에있든 우리大韓民國臨時政府를 支持해야하겠다는것이다. 그래서聯合軍이進駐하는그날 卽乙酉九月七日에 國民大會準備會를結成하여 첫제로 大韓民國臨時政府絶對支持를決議하고…<sup>42)</sup>

39) 金俊淵, 「國民大會의發端」, 『東亞日報』 1945. 12. 2.

40) 金俊淵, 「解放과政治運動의出發」 (三), 『東亞日報』 1946. 8. 20.

41) 미국 제24군단 하지 중장 휘하의 진주군이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뒤 入京한 시각은 9월 9일 일요일 오전 8시였다. 「五個國旗나부끼는속에 解放의使徒堂堂進駐」, 『每日新報』 1945. 9. 9.

송진우는 미군이 入京한다는 그 날에 맞추어 ‘중경임정 절대지지’를 표명하는 국민대회준비회를 발족시켰다. 『先生傳』에는 “八·一五 직후부터 진주한다던 미군은 그 해 九월 七일 인천에 상륙, 즉시 경인가도(京仁街道)를 달려 서울에 입성했다. 고하는 전 동아일보 사옥에서 미군 진주의 광경을 회심(會心)의 미소(微笑)로 맞이했다.”<sup>43)</sup>고 기술했는데, 그의 미소는 자신의 예견이 적중하였다는 흐뭇함의 표현이었다. 송진우는 정치 일선에 적극 나서면서 자신부터 미군정에 적극 밀착하였고, 측근과 지인들 역시 그의 정치 행보에 동행하였다.<sup>44)</sup>

#### IV. 한국민주당 발기와 데마고기: 친일몰이와 중경임시정부 과대평가

1945년 9월 6일 오후 4시 경성부 내 協成實業學校 강당(사무소는 임시로 전 종로구역소 자리인 이곳에 두었다)에서 약 7백여 명이 모여 ‘韓國民主黨’이라는 당명으로 합동 발기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총무부(장은 金炳魯) 등 9개의 부서를 배정하고, 각 부의 책임자와 役員을 선정하였다.<sup>45)</sup>

42) 宋鎮禹, 「年頭所感」, 『先鋒』第二卷第一號, 高麗先鋒社(1946년 1월), 8-9쪽.

43) 『先生傳』, 322쪽; 『傳記』, 462쪽. 『傳記』는 미군의 인천 상륙 일자를 9월 6일로 수정하였다.

44) 『先生傳』의 第六章-6의 소제는 ‘美軍政과 『東亞』復刊’인데 이 절에서 송진우가 미군정과 접촉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군이 서울에 진주한 지 수일 후, 송진우는 미주둔군 사령관 하지 중장과 연락이 잦은 任永信을 중간에 세워 회견을 희망했고, 두 사람이 비밀리에 회담을 가졌다. 송진우는 하지에게 군정의 성격을 물었고, 하지는 송진우에게 한국의 정세를 타진하면서 자신의 포부와 의견을 제시했다. “첫 회담에서 「하지」는 고하의 의견에 찬동하고 심취(心醉)하기에 이르렀다.” 『先生傳』, 322-327쪽. 송진우와 하지 사이의 통역은 雪山 張德秀가 맡았다. 『傳記』, 462-470쪽.

이렇게 한민당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을 향해 가던 그 날 9월 6일 오후 9시, 한민당 발기인 대회보다 5시간 늦은 시각에 建準이 京畿高女講堂에서 전국대표 1천여 명을 소집하여 全國人民代表者大會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朝鮮人民共和國組織基本法 초안을 逐條朗讀한 뒤 다소의 수정을 가하여 통과시켰다. 이 날 선정한 55명의 전국인민위원 가운데에는 李承晩 · 金奎植 · 金九 · 金元鳳 · 申翼熙 등 아직 미주와 중국에 거류 중이어서 귀국하지 못한 중경임정 요인들을 비롯하여, 曹晩植처럼 북한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포함되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人共은 이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인민위원으로 지명하였다.<sup>46)</sup>

建準이 人共으로 탈바꿈하여 출현하자, 한민당은 거친 언사의 성명을 곧바로 발표하여 적대감을 드러냈다. 9월 7일에는 아직 人共 출현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는지, 한민당의 발기인 성명(앞으로 한민당의 발기인 성명을 「성명서」로 표기함)은 하루 지나 9월 8일 발표되었다. ‘韓國民主黨發起人’ 648명의 명의<sup>47)</sup>로 중경임정을 ‘절대지지’하는 결의 및 인공을 배격하는 「성명서」<sup>48)</sup>를 전단으로 살포하였는데,<sup>49)</sup> 좌익 진영을 향한 “최초의 공식적인 선전포고”였다.<sup>50)</sup> 「결의」는 다음과 같이 한 문장이었다.

45) 「大韓臨時政府支持의 韓國民主黨을結成」, 『每日新報』 1945. 9. 9.

46) 人共 書記局은 9월 7일 오전 10시 상기 사항을 발표하였다. 「國號는朝鮮人民共和國」·「各部署도新組織」, 『每日新報』 1945. 9. 7.

47)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昂篇(四)』,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1082-1095쪽에는 「韓國民主 決議文」이라는 제목으로 「決議」·「聲明書」·「一九四五年九月八日韓國民主 發起人」이 실려 있는데 모두 필사이다. 말미에는 발기인 명단으로 孟基永을 끝으로 ‘以上 六四八名’으로 명기되어 있다.

48) 「決議」·「聲明書」(一九四五年九月八日 韓國民主黨發起人), 김현식·정선태 편저, 앞의 책, 52-53쪽.

49) 한민당은 이 「결의」와 「성명서」를 서울 시내 전역에 벽보로 붙이고 또 살포하였다. 宋南憲, 『解放三年史 1945-1948』 I, 까치, 1985, 123쪽.

50) 李敬南, 『雪山 張德秀』, 東亞日報社, 1981, 307쪽.

(자료 10)

우리獨立運動의結晶體이오, 現下國際的으로承認된大韓民國臨時政府外에所謂政權을僭稱하는 一切의團體及그行動은 그어떤 種類를不問하고 이것을 斷乎排擊함 右決議함

「결의」는 人共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人共을 가리키면서 ‘참칭’·‘배격’ 등의 단어로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현하였다. 「성명서」에는 이러한 적대감의 근거가 드러나는데, 중경임정이 “국제적으로 승인”받았다는 왜곡된 사실이였다. 이러한 논리는 人共을 적대하여 중경임정을 절대지지하는 정파들이 한결같이 내걸었던 데마고기였다. 5개의 소절로 이루어진 「성명서」의 (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영똥하게 왜곡하였다.

(자료 11)

… 同時에 우리는國內的으로思想을統一하고 結束을鞏固히하여 海外로부터 도라오는 우리大韓民國臨時政府를 마지하고, 이政府로하야금 하로받비 四國共同管理의軍政으로부터 完全한 自由獨立政府가되도록 支持育成하지않으면안될 것이다.

(자료 11)은 한민당이 내걸은 절대지지론이 처음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요체는 중경임정이 4국의 군정을 대체하여 완전한 자유독립정부가 되도록 이를 지지·육성하자는 중경임정 지지육성론이였다. 그런데 마치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예견한 듯한 ‘四國共同管理의軍政’이라는 문구가 생똥하다.

1945년 9월 7·8일의 시점에서 미소 양군이 38도선을 분할점령한다는 사실은, 불투명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정세판단의 문제가 아니었다. 「성

명서」가 발표되는 9월 8일보다 2주일여 앞서, 정세에 留心한 신문 독자에게는 기정사실로 확인된 객관정세였다.

『先生傳』에 의거해 판단하면, 8월 20일의 시점에서 송진우는 남북이 분할됨을 인지하였고, 북한에 소련군이 이미 진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8·15 다음날인 16일 하오 송진우가 평양의 조만식에게서 장거리전화를 받았을 때, 조만식은 金東元·安東源·吳胤善 등과 함께 의논 중임을 알렸고, “八月二十일께 조만식의 밀명(密命)을 허리춤에 끼고 김동원의 서랑(婿郎)이 서울로 올라왔다. 뒤미처 김동원도 따라 올라왔다.” 김동원과 그의 서랑이 상경한 이유는, 소련군의 진주가 예상 외로 빨랐고, “소군 진주로 하여 북한에서는 민족주의 진영의 행동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송진우 등과 향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송진우는 “이 때 비로소三八선이 그어져 남한에는 미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51)</sup> 『傳記』에는 8월 20일의 중요 사항을 하나 더 기술하였다.

(자료 12)

이 날 미국의 B-29 1대가 서울 상공에 날아와 웨드마이어장군이 서명한 전단을 뿌리고 갔는데 미군이 곧 진주할 터이니 그때까지 일본 행정당국은 종전 당시의 상태로 질서를 유지하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포고문 제1호는 “남조선 민중 각위에게 고함 … 이 전단은 총독부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려던 몽양과 ‘건준’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서울에 진주하는 것은 소련군이 아니고 미국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판단하면, 송진우는 8월 20일의 시점에서는 38도선이 계선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미소가 남북을 분할점령하며 서울이 미군 점령

51) 『先生傳』, 303-304쪽; 『傳記』, 440-442쪽.

지에 포함됨을 분명히 인지하였으므로, 이는 곧 그의 사랑방 동지들에게 공유되었다.

후술할 8월 24일자 『매일신보』의 보도보다 앞서, 실지 8월 20일 미군의 B29기가 서울의 상공에 나타나 뼈라를 뿌려, 9월 3일부터 북위 38도선 이남의 남한 지역에 미군이 진주한다고 예고하였다.<sup>52)</sup> 9월 1일에도 미국 비행기 B24기 한 대가 국내로 비행해 와서 서울을 비롯해 주요 도시에 “미국군사는 조선의재건(再建)과 질서있는정치를 실시코자 근일중에 상륙하겠습니다 이를실시하는것은 민주국인 미국입니다”로 시작하는 내용의 뼈라를 뿌렸다.<sup>53)</sup> 이어 2일에도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 하지 중장 명의로 “美軍은 近日中 貴國에上陸하게되었다. 當軍은 本日東京에있어서 調印될 日本軍降伏에基하여 聯合軍代表로서 上陸하는것으로 貴國을 民主主義制度下에 있게하고 國民의 秩序維持를 圖謀함도 또한 今同上陸의目的이라고할수있다.”로 시작하는 「南韓民衆各位에告함」이라는 警告文을 살포하였다.<sup>54)</sup> 국내외 정세를 예의 주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정황을 놓쳐볼 리 없었다.

52) 高峻石 지음, 정범구 옮김, 『解放 1945-1950 : 공산주의운동사의 증언』, 흥겨레, 1989, 51-52쪽.

53) 「B24뼈라撒布」, 『每日新報』 1945. 9. 1.

54) ‘▲美軍 第八軍司令官「하지」中將 警告(一九四五. 九. 二)南韓民衆各位에告함」, 『史料로본 解放十年略史』(4), 『한국일보』 1955. 8. 18.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의 「TO THE PEOPLE OF KOREA」(英文 타이핑)·「朝鮮半島民衆告」(日文 筆寫)·「韓國民에게告함」(國文 筆寫)이 순서대로 나열된 포고문이 전단으로 살포되었다. 일문·국문과 달리, 영문 포고문에는 맨끝에 John R Hodg라고 친필 서명이 있다. 국문 포고문은 “米軍은日本軍의降 服條件을勵行하며 韓國의再建及秩序있는政治를實施코져 近日中 貴國에上陸하게되었습니다. 使命은嚴格히實施하고저하오나,不幸한國民에게慈悲心깊은民主國인米國에서實施 하는것이니 確實한것입니다.”로 시작한다. 「韓國民에게告함」, 김현식·정선태 편저, 앞의 책, 26쪽. 이를 보면, 미군은 한국에 상륙하기 전 여러 차례 동일한 취지의 경고문·포고문을 남한에 살포하였다.

1945년 8월 24일자 『매일신보』에는 한국이 38도선으로 분할점령된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朝鮮은蘇軍과米軍 臺灣은重慶이保障占領」이라는 기사 제목처럼 내용에서도 “이제臺灣에關하여서는 早晚蔣介石軍의軍政에歸屬할것으로보히는데 朝鮮에關하여서는 自由獨立의政府가 樹立될새까지는米國과蘇聯의 分割占領下에두고 各各軍政이施行될것으로보힌다”고 풀어서 보도하였다.<sup>55)</sup> 「성명서」(一)의 ‘자유독립정부’는 아마 이 신문 기사를 원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늦게 잡아도 8월 24일이면 미군이 남쪽에 진주함은 예견이나 예측이 아닌 기정사실로 보도되었고, 더욱이 9월 초입에는 거듭거듭 확인된 사실이었다.

9월 1일 15시부로 일본정부는 “九月七日에 米陸軍第廿四軍所屬部隊는 朝鮮京城地區에 進駐한다”는 사항과, 이에 부수하여 조치할 세 가지 부대 사항도 덧붙여 발표하였고, 이는 9월 3일자로 보도되었다.<sup>56)</sup> 이 날짜 『매일신보』는 1면 톱기사로 ‘일반명령 제1호’에 근거한 ‘聯合軍占領地域分擔決定’과 ‘降伏文書內容全文’을 신속하게 보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東京】二日調印한 降伏文書에基하여 一般命令第一號(陸海軍)가 公布되었는데이에依하여 日本本土를 爲始해서 滿洲, 朝鮮, 南方各地域의 聯合軍占領地域分擔이 다음과가치 明白해졌다”면서 ‘美軍占領地域’으로 “日本國土 이에 隣接한 諸島嶼 北緯三十八度以南의朝鮮 琉球諸島及比律賓 小笠原諸島の日本國委任統治諸島”라고 밝혔다.<sup>57)</sup> 이 기사의 하단에는 「일반명령 제1호」가 5단에 걸쳐서 全載되었다.<sup>58)</sup>

위의 신문 기사들은 「성명서」가 작성되기 전,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이였다. 한민당 최대의 이론가인 장덕수가 기초하였다는<sup>59)</sup> 「성명서」가, 美

55) 「朝鮮은蘇軍과米軍 臺灣은重慶이保障占領」, 『每日新報』 1945. 8. 24.

56) 「美軍,七日京城地區進駐」, 『每日新報』 1945. 9. 3.

57) 「聯合軍占領地域分擔決定」, 『每日新報』 1945. 9. 3.

58) 「一般命令第一號(陸海軍)」, 『每日新報』 1945. 9. 3.

蘇 양군이 각각 남북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는 현실도 읽지 못한 채 ‘4국공동관리의 군정’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인식과 판단을 내놓은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쉽게 가늠이 가지 않는다. 장덕수와 같은 이데올로그가 언론보도와 미군의 뼈라를 통해 기정사실로 확인된 정황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을 발표할 리 없었다면, 여기에는 의도한 바가 분명 개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성명서」의 특징은 흑백의 논리를 원색조의 언어를 구사하여 데마고기로 포장하였다는 데 있었다.

「성명서」는 이와 같은 방향 아래, 2절에서 여운형과 建準·人共을 향한 공격을 다음과 같이 이어갔다.

(자료 13)

二. 그런데 이 民族の大義務, 大公道가定해있슴에도不拘하고 少數人이 黨派를지어 『建國』이니「人民共和國政府」니를僭稱하여 己未以來이 獨立運動의結晶體요 國際的으로 承認된在外우리臨時政府를否認하는徒輩가있다면 어찌三千萬民衆의容許할바이라 지난八月十五日 日本降伏의報를 듯자總督府政務總監으로부터 治安維持에對한協力の依頼를받은 呂運亨은 마치 獨立政權 樹立의特權이나 마튼듯이 四五人으로써 所謂建國準備委員會를 組織하고 …

비판의 초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중경임정을 부인했다. 둘째, 일제의 치안유지 협력을 독립정권 수립의 특권으로 받아들였다. 셋째, 4·5인의 소수인으로 당파를 지어 建準을 조직했다. (二) 절은 중경임정을 근거 없이 과대평가한 허위 사실에 의거해 人共에 선전 포고하면서, 여운형 등 정적을 친일부역자로 매도하는 두 가지 데마고기

59) 윤덕영, 앞의 논문, 2011, 261쪽.

를 동시에 구사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점잖은 어조였으나, (四)절의 연사는 더욱 격렬하였고 데마고기 또한 절정에 이르렀다.

(자료 14)

四. 일이 여기까지 이르면 發惡밖에 남은것은없다 그들은 이제叛逆의인 所謂人民大會란것을開催하고 朝鮮人民共和國政府란것을組織하였다고發表하였다 可笑타하기에는 너무도事態가重大하다 出席도않고 同意도않은 國內知名人士의名을盜用한것을(‘은’의 오자인 듯 : 인용자) 말할것도없고 海外우리政府의儼然한主席副主席領袖되는 諸英雄의名을을自己的 어께에다 같이 놓아某某委員云云한것은 人心을眩惑하고 秩序를 攪亂하는 罪實로萬事に當한다 그들의言明을드르면 海外的臨時政府는 國際的으로承認 받은것도아니오 卽何等國民의 土臺가없이 樹立된것이니 이것을是認할것이 아니라는것이다 嗚呼라 邪徒여, 君等은現大韓臨時政府의要人이 己未獨立運動當時의臨時政府의 要人이였으며 今後 上海事變, 支那事變, 大東亞戰爭勃發後 中國國民政府와 米國政府의 支持를받아 重慶·華盛頓·싸이판·沖繩等地를轉轉하여 只今에 이른事實을 모르느냐, 同政府가 카이로會談의 三巨頭로부터 承認되고 桑港會議에 代表를派遣한事實을君等은 웨일부리隱蔽하라는가.

大韓臨時政府는 大韓獨立黨의土臺우에섰고 國內三千萬民衆의歡呼裡에 入京하러한다 知名人士의 令名을빌었다 自己威勢를되라는徒輩야 일즉 이 汝等은小磯總督官邸에서 合法運動을 이리키라다 嚙笑를當한徒輩이며 (‘머’의 오자인 듯 : 인용자) 海雲臺溫泉에서 日人眞鍋某와朝鮮의「라우엘」이될것을 꿈꾸든徒輩이며 日本의壓迫이逍漁되자 政務總監, 京畿道警察部長으로부터 治安維持協力の委囑을받고 피를흘리지않고 政權을奪取하겠다는野望을가지고나선 日本帝國의走狗들이다.

(자료 14)는 중경임정이 국제사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고, 국민의 토

대 없이 수립되었다는 人共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중경임정을 옹호하는 주장들이 하나같이 사실이 아니었을 뿐더러 터무니없는 虛說이었다. 임시정부가 중국과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아 워싱턴·사이판·오키나와 등지를 전전하였다라는 주장은 문자 그대로 構虛捏無였다. 송진우가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전해들었다면, 주변의 지인들도 공유하였을 터인데 루즈벨트·처칠·장제스가 중경임정을 승인하였다는 사실도 무근하다. 임시정부가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은 사실이나,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는데도 참가하였다 함은 과장이었다.

(자료 14)에서 마지막 구절은, (자료 2)에서 확인한 바 송진우가 ‘라우렐’ 운운한 논리와 그대로 일치한다. 송진우의 ‘대책무책론’이 제기한 汪兆銘·라우렐=‘허수아비 정권론’은, 깊은 적대감이 배인 채 建準=친일정권론이라는 등식에 대입되어 「성명서」에 반영되었다. “피를흘리지않고 政權을奪取하겠다는 野望을가지고나선 日本帝國의走狗들이다.”라는 비난은, 1944년 7월 안재홍이 송진우를 찾아갔을 때, 송진우가 안재홍을 힐난했던 언사에 ‘日本帝國의走狗’라는 원색을 덧붙였을 뿐이다. 「성명서」, 그 중에서도 (자료 14)에 의거해 판단하면, 송진우가 임시정부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안재홍의 회고는 착오나 虛言이 아니었다. 누구보다도 “국제정세에 밝은” 송진우가 임시정부를 추대하는 근거 자체가 허구였다.

한민당 발기인 성명이 여운형·안재홍을 ‘日本帝國의走狗’라고 비난하자, 朝鮮獨立同盟과 人共 측에서 즉각 반박하는 성명서를 역시 전단으로 살포하였다. 조선독립동맹이 발표한 반박문에서는 “呂安을日本帝國의走狗라하니 그들이三四次의投獄과警察의無數한監禁은 日本의走狗노릇하다그리하였느냐”고 반문하면서, “發起人諸氏は祖國의光復을爲하야 얼마나 奮鬪하시었나 또張德秀先生을 筆頭로 俞億兼氏, 伊東致昊氏

의第伍等을爲始하여發起人中相當한多數의人士가 皇民化運動에얼마나 努力하셨는지 回顧하여보라”<sup>60</sup>)며 한민당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찔렀다. 장덕수 등 거론된 한민당 인사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정곡이었다.

발기인 성명이 “同意도않은 國內知名人士의名을盜用”당하였다고 비난한 행태도 숲이 검정 나무라는 격이었다. 人共 측이 “國內知名士의名字를盜用했다는問責의화살은도로혀君等自身의가슴으로도라간다該聲明書에실인數百名에達한發起人의名字가모다本人의志願及其諒解에依한것인가. 우리는該聲明書에서不幸히盜用의惡例를적지안케指摘할수있다.”고 반박함<sup>61</sup>)도 당연하였다.

人共의 인민위원 명단에 포함된 權東鎭·吳世昌·金性洙·金炳魯 4인이 “全然承諾한 事實이없을뿐만아니라 何等關係가없음을 表明함”이라는 성명<sup>62</sup>)을 발표하였다. 마찬가지로 한민당 발기인의 명단에 포함된 兪鎭午·白南雲·李鍾洙·金榮勳 4인도 9월 14일 “所謂『韓國民黨』發起人이라는正體不明의 一黨이 우리들의 名義를 盜用하여發起人의 一員으로 發表하였으나 事實無根이며 따라서 그런非良心의인聲明과 決議에 加담한事實이全無함을聲明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up>63</sup>)

建準의 두 주역인 여운형·안재홍을 친일파로 비난함은, 8·15해방 직후 제기된 최초의 친일 논쟁으로 송진우·한민당이 發話者였다.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자, 한민당이 미군정에 접근하여 최초로 주력한 일은 建準·人共이 친일파·공산주의자·민족반역자로 구성

60) 「韓國民黨發起人姜仁澤, 姜章洙, 姜樂遠氏外六百餘人에게告함」(一九四五年九月十四日 朝鮮獨立同盟 京城先鋒代表), 김현식·정선태 편저, 앞의 책, 66-67쪽.

61) 「韓國民黨發起人聲明書에對한聲討文」(一九四五年九月十一日 朝鮮共產黨京城地區委員會宣傳部), 김현식·정선태 편저, 앞의 책, 64쪽.

62) 김현식·정선태 편저, 앞의 책, 60쪽.

63) 김현식·정선태 편저, 앞의 책, 68쪽.

되었음을 선전하고, 여운형·안재홍 등을 ‘유명한 친일파’로 비방하는 일이었다. 한민당은 미군정에 “인공이 다른 집단에게 있는 주권을 찬탈하고, 공산주의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일파의 집단”이라고 악선전하였다.<sup>64)</sup>

모두 25개의 小章들로 구성된 소책자인 『小史』에는 한민당이 창당 전 후에 유포시켰던 데마고기가 확장되어 집약되었다. 첫 번째 장은 ‘一.本黨發黨前後의國內情勢’라는 題下에, 전반에서 여운형의 친일 행위를 집중해서 거론한 뒤, 建準이 친일파·공산주의자의 조직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자료 15)

…八月十五日前に 總督府政務總監 遠藤은 宋鎮禹氏를 먼저請하야 治安維持會와같은것을 組織하야 行政權一切를 맡아가라하였는데 宋氏는八月九日부터 十三日까지數三次面會懇請함을不拘하고 이것은日本-聯合軍-우리獨立政府와의接受할것시오 總督府君等이吾輩에게 할일이아니라하여拒絕하였다 其後呂運亨을불러 이러한것을交涉한模樣으로 呂는即時受諾하야 所謂朝鮮建國準備委員會를 組織하였다 그組織은 所謂委員長에呂運亨, 副委員長安在鴻, … 極히少數人일뿐아니라 親日色彩가濃厚한사람 또는共產主義者들이 있었다. 그들은一九四四年八月부터 秘密結社로建國同盟을組織하였다하지만은 그것은 空然(公然의 오자인 듯 : 인용자)한秘密이었으니 再昨年二月呂가小磯總督을通하야 所謂「興亞同盟」이란政治團體를組織하려고 十三道各代表一人式을뽑아 總督官邸에 晚餐會를盛大히하였는데… 其紹介役은小磯의私秘書眞鍋某라한다 그때眞鍋秘書와呂의 通譯高景欽等三四人이 數朔間運動하였다한다 … 또昨夏頃日本政府御用學者大川周明과相通하야 慶南海雲臺溫泉等地에서 所謂「皇民運動」을이르

64) 브루스 커밍스 지음, 김주환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上, 靑史, 1986, 242-245, 174쪽.

키기로約束하였던것은 其時京城日報에 報道되었든바와같다 이와같이一方 所謂建準을 組織한共產派는 十六日長安彔에서 朝鮮共產黨을組織하고 … 日本人世話會某가居留民을代表하여 呂를맞나巨금을주며 (七十萬圓이라云云하나額數는未詳) 日本人의居留權을認定하여달라함에 呂는卽席承認하고 右金額을받았다는事實을말하자 遠藤은建國二字의 存置를默認하였다한다 이뿐아니라總督府當局은 그腹案이親日派政權을세워 將來저이들의殘命을 保持하려고朝鮮人官吏特히 警察官親日派等等으로하여금 隨隙入參케하고物質的으로 暗暗裡積極援助하며 所謂各會社商店等の接收를 便利하게 도아주는事實이歷歷하였다<sup>65)</sup>

『小史』는 먼저 송진우가 遠藤 총감에게서 직접 간청을 받았음을 내세우면서, ‘치안유지회’와 ‘행정권일체’라는 상충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행정권 이양의 수준으로 교섭을 받았다고 사실 자체를 부풀렸다. 나아가 건국동맹조차 조선총독부와 연계·조직되었다는 어감을 풍기면서, 여운형이 황민화운동에도 관계하였다는 증거로 “~다 한다”는 風說과 조선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를 들었다. 建準 또한 조선총독부가 친일정권을 세우려는 의도와 연계·조직되었고 활동도 총독부의 원조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인 단체가 여운형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는 所聞을 근거로 들었다. (자료 15)는 (자료 14)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과거 공산주의자였던 高景欽 등의 이름을 넣어 建準을 친일 조직이자 공산주의 조직이라고 매도하였다.

여운형의 사돈이자 최측근인 李萬珪는, 『小史』보다 2년여 앞서 출간한 『呂運亨先生鬪爭史』에서, 해방정국기 여운형에 쏟아진 비난들을 하나의 장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돈먹었다는 非難’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65) 金俊淵 編輯 兼 發行, 앞의 책, 1-3쪽.

이 기술하였는데, 『小史』와 내용이 일치한다.

(자료 16)

그後부터 無根한 惡評이 자꾸 쏟아졌다. 夢陽이 日本總督府 돈을 七十萬圓을 먹었느니 建準은 總督府의 承認을 얻은 親日團體이니 하며 大大的으로 宣傳하였다. 이것을 外國記者 또는 軍政當局 美國人에게까지 流布하였다. 題마의 出處를 糾明할 必要도 없지마는 出處를 제절로 알게 된 夢陽은 獨立促成中央協議會 銓衡委員會 席上에서 宋鎮禹를 面駁하여 座中을 啞然케 하였었다.(그部分을 參照)<sup>66)</sup>

한민당 인사들이 해방정국기 여운형·안재홍에 쌓인 적대감은, 그들의 自傳 류의 글에서 일제 말기 자신들이 介潔하였음을 내세우는 방편으로도 활용되어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중반까지도 되풀이되었다.

조병옥이 가족의 생활비를 “內子의 바느질 품삯으로 充當”하던 일제 말기, 그는 일제에게서 회유의 유혹을 받았으나 단호히 거부하였음을 말하면서, 權泰錫까지 끌어들이 여운형·안재홍이 일제와 타협·친일하였음을 에둘러 비난하였다. 이에 따르면, 권태석이 하루는 조병옥을 찾아와 말하였다. 자신이 北京에서 “金子大佐라는 日本退役軍人을 만나 잘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현재 興我同盟本部의 총재로서 조선지부를 설치하기 위해 지금 서울에 와있으니 함께 만나보자고 권하였다. 그러면서 “呂運亨과 安在鴻氏는 벌써 興亞同盟朝鮮支部의 幹部로서 協力할것을 金子大佐에게 約束하였다는 것”도 전하였다. 이어 권태석은 만약 조병

66) 이만규가 “(그部分을 參照)”라고 한 대목은 ‘第十四 外交’의 ‘四. 中傷한者面駁’인데, 獨立促成中央協議會 銓衡委員會 자리에서 여운형이 자신을 모략 증상한 송진우를 이승만 등 좌중 앞에서 면박한 일화를 소개하였다. 李萬珪, 앞의 책, 227-228, 251-252쪽.

옥이 “興亞同盟朝鮮支部의 總務部長을 應諾하고 呂運亨, 安在鴻氏와 같이 協力만 한다면, 月給五百圓까지 주겠다고 성화같이 誘惑”하였다.<sup>67)</sup>

이인은 자신이 朝鮮語學會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출옥한 이후부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보고 겪은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회고하면서, 첫 소재를 ‘日帝의 發惡과 親日派의 妄動’으로 붙여 崔麟·崔南善 등의 친일 행적을 거론하였다. 두 번째 소절로 ‘御用政黨 「朝鮮大衆黨」 流産顛末’의 제목으로 여운형·안재홍·권태석의 친일 행위를 거론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운형은 총독부의 어용정당을 만들기 위해, 안재홍을 끌어들여 政綱政策과 發黨宣言文까지 만들어 ‘朝鮮大衆黨’을 창당하려 하였으나 유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권태석이 아편을 밀매한 賣却金이 당에 흘러 들어갔고, 헌병대가 여운형과 안재홍의 가택을 수사한 결과 상당량의 아편을 발견했다. 이인은 여운형의 전향서와 관련하여서도 사실로 단정하여 기술하였다.<sup>68)</sup> 이인의 회고담은 누가 보더라도, 建準을 주도한 여운형·안재홍·권태석을 친일파로 비난하였다. 더욱이 권태석에게는 아편밀매자라는 오욕까지 덧칠하였고, 여운형·안재홍도 아편밀매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에둘러 표현하였다.

67) 趙炳玉, 앞의 책, 129-130쪽.

68) 李仁, 『解放前後 片片錄』, 『新東亞』 통권 제36호, 東亞日報社(1967년 8월호), 352-358쪽. 이후 이어지는 小題는 이인 자신의 활동상으로, ‘朝鮮語學會事件과 나’- ‘武力蜂起로 自主獨立’이다. 여운형·안재홍·권태석의 친일 행위에 대비시켜 자신의 고난상과 저항 활동을 그리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인은 회고록에서도 “아무튼 建準은 日帝말기 御用政黨인 괴뢰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니 하는 소문이 돌고…”라고 기록하였다. 李仁, 『半世紀의 證言』, 明知大學出版部, 1974, 145쪽. 이인은 ‘소문’에 의거하여, 建準이 조선대중당의 연장으로서 일제의 괴뢰정당이라고 성격규정했다.

## V. 맺음말

1943년 들어 송진우는 일제필망을 확신하면서도 대책무책론으로 처신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8·15해방을 맞았다. 그는 측근들에게 일제가 필망하기 직전에 한국인에게 ‘자치’와 ‘독립’이라는 ‘미끼’를 순차로 던지리라고 확언하면서, 汪兆銘·라우렐·페탕의 예를 들며 경계하라고 충고하였다.

송진우는 연합국이 국내에 진주하기 전, 일제가 한국인에게 일정한 제한 아래 권력을 위임·이양하려는 사태를 예견하였다. 그는 일제필망의 시기에 대책무책론으로 保身하는 處身을 자기방어하는 한편, 일제에게서 권력을 이양받아 등장할 대체권력을 친일부역한 ‘허수아비 정권’으로 등치시켰다. 일제필망론에는 8·15해방 후 한국민주당(한민당)의 발기인 「성명서」에 구사한 親日데마고기가 깔려 있었다. 이들이 제기한 여운형·안재홍의 친일 행위는 해방정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친일데마고기였다.

8·15해방 직전 송진우는, 일제가 항복하는 즉시 연합군이 상륙하고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중경임정)도 뒤이어 입국하리라고 ‘낙관’하였다. 8·15해방 당일 송진우는 자신의 사랑방에 모여든 한민당 구성원들에게 향후 해방정국을 일관할 시국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합국의 대한정책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총독정치로 현상을 유지하되, 연합군이 진주하여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연합국을 직접 상대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현상유지책과 연합국 직접상대론이었다.

사이판전투의 결과가 국내에 전해지던 1944년 7월경, 송진우는 중경임정을 대체권력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는 일제의 패망과 동시에 중경임정이 연합군과 함께 국내에 곧바로 진입하여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

라 낙관하였다. 그는 중경임정을 ‘절대지지’하는 방식으로 중경임정의 정통성을 자신들과 동일시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로써 조선건국준비위원회(建準)-조선인민공화국(人共)을 괴뢰정권으로 비난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송진우의 정국 구상에서 연합군은 독립변수였고, 중경임정은 建準의 비합리성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종속변수였다. 연합군이 진주하면 建準의 존재 여부는 미지수이므로, 송진우는 建準에 가입하지 않고 연합군과 직접 상대하려 하였다. 연합군 직접상대론은, 이후 미군정에 밀착하여 미군정의 여당으로 자리잡고 나름의 권력을 장악하는 한민당의 정치행태와 일치하였다.

1945년 9월 6일 建準이 人共으로 탈바꿈하여 출현하자, 한민당은 9월 8일 ‘한국민주당발기인’ 명의로 중경임정을 ‘절대지지’하는 「결의」 및 人共을 배격하는 「성명서」를 전단으로 살포하였었다. 「결의」와 「성명서」는, 8·15해방 후 허위사실을 조작하며 과장법을 휘두르는 우익 데마고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였다. 「성명서」의 또 다른 특징은 흑백의 논리를 원색조의 거친 언어를 구사하여 친일 데마고기로 포장하였다는 데 있었다.

한민당이 建準·人共에 대항하는 논리는 친일몰이와 중경임정 절대지지론이었다. 일제와 建準을 동질의 성격으로 논쟁화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시기 여운형·안재홍이 일제와 접촉한 사실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송진우의 ‘대책무책론’이 제기한 汪兆銘·라우렐=‘허수아비 정권론’은, 깊은 적대감이 배인 채 建準=친일정권론이라는 등식에 대입되어 「성명서」에 반영되었다. 建準의 두 주역인 여운형·안재홍을 친일파로 비난함은, 8·15해방 직후 제기된 최초의 친일 논쟁으로 송진우·한민당이 發話者였다.

「성명서」는 중경임정이 중화민국과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아 워싱턴·사이판·오키나와 등지를 전전하였다 ; 루즈벨트·처칠·장제스가 「카이로 회담」에서 중경임정을 승인하였다 ; 중경임정이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중경임정과 관련한 「성명서」의 주장은 왜곡과 과장의 데마고기였다. 「성명서」는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중경임정을 절대지지하고, 이로써 人共을 공격·분쇄하는 데 집중하였을 뿐 국가건설의 비전을 진전시키지는 않았다.

▣ 참고문헌

- 高峻石 지음, 정범구 옮김, 『解放 1945-1950 : 공산주의운동사의 증언』, 흥겨레, 1989.
-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 編, 『古下宋鎮禹先生傳』, 東亞日報社出版局, 1965.
-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 編, 『古下宋鎮禹傳記』, 東亞日報社, 1990.
- 金俊淵 編輯 兼 發行, 『韓國民主黨小史』, 韓國民主黨宣傳部, 1948.
- 김현식·정선태 편저, 『빼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 소명출판, 2011.
- 安在鴻選集刊行委員會 編, 『民世安在鴻選集』 2, 知識産業社, 1983.
- 李萬珪, 『呂運亨先生 鬪爭史』, 民主文化社, 1946.
- 李仁, 『半世紀의 證言』, 明知大學出版部, 1974.
- 趙炳玉, 『나의 回顧錄』, 民教社, 1959.
- 崔興朝, 『民主國民黨의 內幕』, 三八社, 1952.
- 金俊淵, 「古下·宋鎮禹」, 『新太陽』 通卷 第六三號·第六卷 第十二號, 新太陽社 (1957년 12월).
- 宋鎮禹, 「年頭所感」, 『先鋒』 第二卷第一號, 高麗先鋒社(1946년 1월).
- 宋鎮禹, 「四大政黨의 政見發表-韓國民主黨總務 宋鎮禹氏放送」, 『中央新聞』 1945. 12. 22.
- 呂運亨, 「新朝鮮建設의 大道」, 『朝鮮週報』 第一卷 第二號, 朝鮮週報社, 1945. 10. 22.
- 李仁, 「解放前後 片片錄」, 『新東亞』 통권 제36호, 東亞日報社(1967년 8월).
- 金仁植, 「송진우·한국민주당의 ‘중경임시정부 절대지지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4집, 2003.
- 김인식, 『안재홍의 신국가건설운동 1944~1948』, 선인, 2005.
- 서중석, 「안재홍과 송진우」,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라이벌』, 역사비평사, 1992.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 宋南憲, 『解放三年史 1945-1948』 I, 까치, 1985.
- 윤덕영, 「고하 송진우의 생애와 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현대사인물연

구』 2, 백산서당, 1999.

윤덕영, 「송진우 · 한국민주당의 과도정부 구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론」, 『韓國史學報』 第42號, 2011.

윤덕영, 「일제하 · 해방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노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李敬南, 『雪山 張德秀』, 東亞日報社, 1981.

이현주, 「8·15 전후 朝鮮總督府의 정책과 朝鮮政治勢力의 대응」, 『國史館論叢』 第108輯, 國史編纂委員會, 2006.

〈Abstract〉

Founding of the Korea Democratic Party and  
It's Demagoguery  
– Focusing on Changes According to Song  
Jin-woo's Movements –

Kim, In-Sik

As the Korean Peninsula transitioned into a state of liberation with multiple political parties after World War II, by the end of 1945, the political landscape was dominated by four prominent parties: the Communist Party of Korea(朝鮮共產黨), the People's Party of Korea(朝鮮人民黨), the National Party(國民黨), and the Korea Democratic Party(한민당),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Four Major Parties.'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these influential parties had the responsibility of channeling the political aspirations of the people, and their ideologies and policies played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nation's reconstruction.

The ideologies and approaches of the 'Four Major Parties,' led by their respective leaders in the post-liberation era, were an extens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at took pla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se parties shared a commonality in having a history of anti-Japanese

activism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were represented by figures who had gained prominence.

While the Korean Democratic Party did not form a 'puppet government' like the Korean People's Republic(人共), it quickly emerged as a party that opposed the the Korean People's Republic(人共) in the face of the imminent arrival of U.S. forces. Hence, the Korean Democratic Party began as a coalition of forces that harbored a sense of opposition and hostility, rather than an ideological party based on a specific set of principles and policies.

It is customary for political groups and parties to engage in political warfare against other groups and parties based on political ideologies and policies. However, the Korean Democratic Party was unique among the 'Four Major Parties' in using hostility towards specific political forces as the *raison d'être* for its existence. The Korean Democratic Party rationalized its existence by propagating anti-people's government and anti-communism, thus setting it apart from the other parties.

Demagoggi's direction was two-fold: criticizing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Korean Rehabilitation and the Korean People's Republic as pro-Japanese, communist, and pro-USSR forces, and overestimating and supporting the Joongkyung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under Jung Gyeong, the so-called 'absolute support theory for the Joongkyung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Demagoggi was closely related to the post-liberation activities of Korea Democratic Party members, with Song Jin-woo at its c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oots of the rationale for the founding of the Korea Democratic Party immediately after August

15, the day of liberation, and Song Jin-woo's vision for the country's governance prior to August 15.

Key Words : Demagogy, Imperative Support Plan on Joongkyung Provisional Government, Joongkyung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Lyuh Woon-hyung, the Korea Democratic Party, the Korean People's Republic,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Korean Rehabilitation, Song Jin Woo, 8 · 15 National Liberation

이 논문은 2023년 10월 20일에 접수되어 12월 6일에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